

회의의사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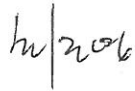
회의명	제1차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일시	2011. 1. 24(월) 7:00pm
회의장소	복음관 회의실	불참자	이철희
회의자료	2011 등록금 책정 자료 1부		

회의내용	<p>최선희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선포하고 찬송가 359장 찬송을 부른 후 김종완 위원의 지도로 회의를 시작하다. 순서에 따라 강우정총장이 전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인사말을 하다. 이어 최선희위원장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등록금상한제 실시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배부된 2011 등록금 책정을 위한 자료를 근거로 등록금 책정에 대해 설명하다</p> <p><토의 내용></p> <p>▪최선희 : 첨부자료를 근거하여 2011년도 총 세입이 등록금 동결시 11,833,098,210원으로 총 세출예상액 16,189,804,290원에 비해 4,356,706,080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부족한 4,356,706,080원을 충당하기 위해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1,230,000,000원을 차입하고 2,361,800,000원을 기금인출 하고 등록금 5%를 인상하므로 나머지 764,906,080원의 부족액을 충당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다.</p> <p>최선희위원장의 설명에 따라 각 위원이 세부세출내역과 세입내역을 기초하여 각 항목에 대해 토의하다.</p> <p>▪최선희 : 현재 세출은 각 부서에서 올라온 요구안을 10% 기준으로 삭감하였으며 시설관리비 및 운영비 중 홍보비가 증가하였다고 설명하다.</p> <p>▪박하중 : 교원인건비에서 현상경력 인정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분에 대해 그동안 인정되지 않았었는지 질문하여 최선희위원이 그렇다고 말하고 올 해부터 반영하기로 되어 있다고 답하다</p> <p>▪최선희 : 세입 및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첨부된 별표 1,2를 참고하여 인건비 상승 등 각종 세출 상승 요소들을 상세히 설명하다. 교육환경개선비에 간호학 신설과 관련한 각종 기자재 및 각종 첨단기자재 업그레이드 비용이 포함되었다고 설명하다. 또한 장기차입금 상환에서 그동안 이자만 지불하다가 올해부터 원금도 상환하게 되어 지출 상승요인이 되었다.</p> <p>▪신창현 : 건축물관리비는 건물이 증가하면 더 늘어나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줄었느냐고 질문하다.</p> <p>▪최선희 : 전년도에는 예산을 여유있게 책정해 두었기 때문에 금액이 많았으므로 올 해는 최소한으로 건축물관리비를 사용한다면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다.</p> <p>▪박하중 :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인한 학생경비 증가액이 너무 많아 보인다.</p> <p>▪최선희 : 교육역량강화사업 5억과 선정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자부담 비용, 등록금 인상을 고려한 장학금 인상분, 물가상승율을 반영한 자동 인상 등이 반영되어 그렇다고</p>
------	---

회의의사록

회의명	제1차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일시	2011. 1. 24(월) 7:00pm
회의장소	복음관 회의실	불참자	이철희
회의자료	2011 등록금 책정 자료 1부		
	<p>답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창현 : 수강료수입이 평생교육원에서 나온다면 학생은 얼마나 되는지, 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한 것인지 질문하다. ▪조혜경 : 현재 개설된 강의 수에 학생 수가 적었기 때문에 학생이 늘어나는 것은 강의실을 채우는 개념이므로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다. ▪최선희 : 교육의 수입이 줄어든 것은 기금인출로 인한 예금이자 감소로 인함이라고 말하다. ▪박하중 : 교육역량강화사업 5억을 반영하더라도 전년대비 감소된 국고수입에 비해 학생경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다.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은 증가했다. 학생경비 책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다. ▪최선희, 김중완 : 2011년 국고 수입 대비 학생경비는 자연발생 경비와 교육역량강화사업, 교수학습센터 학생지원금, 어학연수 등을 지난해에 추가하여 책정하고 일정액의 교비자부담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하다. ▪최선희 :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 책정 표에 대해 설명하여 학부와 대학원 모두 5% 인상하는 것으로 책정하게 되었다고 말하다. ▪박하중 : 사회과학부와 간호학부, 정보과학부의 등록금이 다른데 전공에서 사용하는 금액에 따른 등록금 배정도 달라야 하지 않는가 질문하다. ▪김중완 : 간호학 전공과 정보과학부 모두 초기 투자비용이 많기 때문에 타 전공에 비해 등록금액이 많게 된다. 전공별 세부지출내용을 산출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세밀한 적용은 곤란하다고 답하다. ▪최선희 : 간호학전공과 정보과학부 전공에 투자되는 비용은 시설투자 및 교원 등을 비교한다면 2전공에 투입되는 비용 규모는 유사하다고 보이므로 두 전공의 등록금을 동일하게 책정한 것이라고 말하다. ▪김중완 : 간호학부와 정보과학부는 지속적인 전공 공간 구성 및 교육환경 구축에 투자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등록금이 타 전공에 비해 비싸다고 답하다. ▪박하중 : 타 대학도 이 정도 수준으로 전공 간 격차가 있는지 질문하다. ▪김중완 : 타 대학도 참고는 하였으나 산술적인 자료는 없다. 단지 타 대학이 실습비를 반영하는 금액을 감안하여 우리 대학에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을 산정한 것이다. 또한 인건비 부분도 전체 운영 예산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하다. ▪박하중 : 고정부채 외에 투자와 기타자산 인출은 재정원이 어디인가 질문하다 ▪최선희 : 부채상환을 위해 적립해 두었던 기금에서 찾아 쓰는 것으로 인출 후 기금액은 		

회의 의사록

회의명	제1차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일시	2011. 1. 24(월) 7:00pm
회의장소	복음관 회의실	불참자	이철희
회의자료	2011 등록금 책정 자료 1부		
	<p>12억정도 남아 있다고 말한다.</p> <p>▪최선희 : 등록금 인상율은 신입생 등록금은 전년대비 1.78%인상된 것으로 확정하고 학부 5%, 대학원 5%를 적용하기로 하여 위원의 의견을 물으니 박하중위원이 동의하고 조혜경위원이 제청하여 모두가 가하여 안전 수정 없이 가결되다.</p> <p>8시 30분경 조혜경 위원의 마침기도와 주기도문으로 회의를 마치다.</p>		
참석자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text-align: center;"> <p>최선희 </p> <p>조혜경 </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박하중 </p> <p>김중완 </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신창현 </p> <p>최근영 </p> </div> </div>		